

-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직원의 고객 응대기술 향상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은행도 존재
- 특히 2000년 이후에는 퇴직 후 제2의 삶에 관한 세미나,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상담회의 개최, 회원 전용 창구(상담원)의 설치 등 다양한 라이프 플랜,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종합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
■ 증권사 및 보험사의 경우 은행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정부 및 협회의 지원과 협조 하에 고령화 대책을 마련 중

- 증권업협회와 금융청은 고령화시대 자산형성을 위해 2014년부터 NISA(일본판 소액투자비과세제도) 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바, 동 제도에 대한 고령세대의 인식을 환기·홍보하기 위해 NISA추진 Working Group을 설치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중

* NISA란 ‘소액 상장주식 등에 관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 등의 비과세 조치’를 의미하며, 일본의 개인 주식 및 뮤추얼 펀드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연간 최대 100만 엔을 비과세 하는 제도

* 동 제도는 영국의 거주자에 대한 소액 투자를 우대하는 비과세 제도인 Individual Saving Account를 참조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‘일본판 ISA’라고도 하며 2014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임.

- 생명보험협회와 금융청은 간병관련 보험상품 개발시 이용하는 샘플 데이터의 적합성 및 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함.¹⁴⁾

* 금융청은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샘플 데이터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그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며, ‘보험회사를 위한 종합 감독지침’에서는 보험상품 심사시 보험회사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금융청이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도록 명시

- 증권업협회와 투자신탁협회는 현역 세대의 적립식 장기투자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투자신탁 상품개발과 영업을 지원하고,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개인연금보험을 필두로 저축성 보험상품 및 저축기능을 겸비한 적립식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고령자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

14) 金融廳, “高齢化社會に對應した金融サービスの向上にむけて”, 2013.05.13.